

[기호 1] 경영학과 NGUYEN BUI PHUONG TU



저는 베트남에서 온 프엉 두라고 합니다. 2018년 2학기에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학생이 되었습니다. 제 성격은 조금 활발합니다. 처음 사람을 만나면 부끄러움이 많아서 내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친해지면 사람들은 저를 활발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활동을 참석하는 것을 좋아 해서 초등학교부터 매년 학교 학생회며 저희 반이며 직무가 있었고 리더의 자리까지 담당했습니다. 지금도 아주대학교의 베트남 학생회에서 둘째 임기 하고 있습니다.

유학생이란 다른나라에서 아무것도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 지 저도 이해합니다. 저는 경험이 많지 않는데 도와 드릴 것이 있으면 진심으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유학생회에 힘들 때는 도움을 받으면 외롭지 않는 느낌도 있고 마음에 따뜻하게 느낌도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랑 선배님에게서 조언 뿐만 아니라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항상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다른 친구들에게 그 느낌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한국어를 잘 못 했기 때문에 친구하고 같이 모으고 스터디도 할 예정입니다. 2018-2학기 학부 유학생 동기에 당선이면 저희 유학생 친구들은 한국생활이며 학교생활이며 잘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2] 문화콘텐츠학과 PHAM THI PHUONG NGA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트남에서 온 (pham thi phuong nga) 팜 티 프엉 응아라고 합니다.

저는 아주대학교의 유학생 동맹회 회장 자리를 신청하려고 이 자기 소개서를 썼습니다. 저는 아주대학교 어학당에서 1년 9개월 동안 한국어를 공부한 후 아주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지금 저는 문화콘텐츠학과에서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동맹회 회장 자리를 신청한 목적은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의 능력과 열정은 다른 친구의 도우미가 되고 싶다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두 번째, 저의 학업 계획서는 수업뿐만 아니라 여러 활동을 통해 그룹활동, 문제 해결 기능, 지도력 등을 연마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신청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부족한 것도 많고 장애물이 많이 있겠지만 열정과 강한 추진력으로 목표를 이루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 2학기 유학생 동맹회 회장에 도전하고 싶습니다.